



5월24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실국	농식품유통과	과장	강 종 철	팀장	김 영 석	☎	286-6430
----	--------	----	-------	----	-------	---	----------

전남도, 공공기관1호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 현판식

- 도청 구내식당 공공기관 1호 지정, 국산김치 소비촉진에 솔선수범 -

전남도는 전국 첫 민관합동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추진한데 이어 도청 구내식당에서 공공기관 1호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하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장,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장, 김애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전남지회장, 박정희 전남김치생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도내 공공기관, 음식점,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업소를 5,0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도민이 참여하는 국산김치 소비촉진 캠페인, 전남산 김치 할인행사, 릴레이 챌린지,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인증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촉진 대책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100% 국산 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외식업소와 학교 등에서는 시군 농업부서나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의 본고장 전남도가 공공기관 1호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을 받게 되어 기쁘고”, “공공기관부터 국산 김치 소비촉진에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김치 생산비 절감을 통해 내수 소비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원재료 저장물류 및 자동화 생산시설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해 김치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진있음)